



보도 일시	2022. 7. 28.(목) 즉시	배포 일시	2022. 7. 28.(목) 16:00
담당 부서	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장 유민수 (042-363-3540)
		담당자	사무관 장은해 (042-363-3541)

우리에게 남은 0.39°C 함께 지켜요

-대전지방기상청 · 대전교통공사 협업 탄소중립 · 기후위기 캠페인 운영-

-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영연)은 대전교통공사와 함께 7월 28일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대인 14시부터 16시까지 지하철 1호선 대전역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기후위기·탄소중립 캠페인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.
-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1.5°C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홍보물(부채)를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 내 ‘폭염대비 노약자 쉼터’ 및 대전역 이용객에게 배포하였다.
- 폭염으로 인해 예상되는 분야별 영향까지 고려하는 영향예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모든 역사 내 게시하였고 리플릿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.
- 대전지방기상청 박영연 청장은 “기후변화에 비해 탄소중립·기후위기에 대한 필요성과 체감도는 낮으며 이를 알리는 것은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입니다. 세계기상기후에서 발간한 2021년 전 지구 기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보다 벌써 1.11°C 높아졌다고 합니다. 우리에게 남은 0.39°C를 지키는 일, 기후행동의 작은 실천이 보탬이 될 것입니다.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생활 속에서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상특보와 영향예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□ 관련사진

